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과의 관계 -G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김경하¹, 노소영^{1*}
¹송원대학교 간호학과

ITs Relationship with Smartphone Addiction, Parenting Attitudes and Resilience on Adolescents -A Survey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 city-

Kyung-Ha Kim¹, So-Young Roh^{1*}

¹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o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자료는 G 광역시 중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기술적 통계, 독립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é 사후검증, Pearson 상관계수 및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모양육태도와 적응유연과의 사이에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는 성별, 스마트폰 사용시간, 부모 양육태도, 적응유연성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21.9% 설명하고 있으며, 이 중 부모양육태도($\beta=.241, p<.001$)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성별, 스마트폰 사용시간, 적응유연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parenting attitudes and resilience to identify the relevant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220 middle school students responding to questionnaires in G city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enting attitude and resilience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martphone addiction.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were gender, the time of smartphone usage, parenting attitudes, and resilience. These variables explained 21.9% of smartphone addiction and the highest factor was the parenting attitudes, followed by gender, time of smartphone usage, and resilience. This study indicated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program to ensure adolescents positively perceive parenting attitudes and increase their resilience to decrease the incidence of smartphone addiction.

Keywords : Smartphone addiction, Parenting attitudes, Resilience, Adolesc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강국으로 다른 선진국 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및 이용이 현저하게 대중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내손안의 PC”로 알려진 스마트폰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Roh(Songwon Univ.)

Tel: +82-62-360-5944 email: rsy2010@naver.com

Received January 5, 2016

Revised (1st February 19, 2016, 2nd March 2, 2016)

Accepted March 3, 2016

Published March 31, 2016

로 해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용률이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스마트폰 이용인구는 4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1].

현대인의 삶속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스마트폰은 휴대폰 기능 이외에 인터넷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휴대폰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과 같이 급단, 내성, 일상생활장애의 특성을 나타내고, 이외에 편리성 증대, 접근성 증대,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앱과 콘텐츠로 인한 앱 중독과 콘텐츠별 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 크다[2].

현재까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급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2].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중독률은 6.9%로 전년(7.0%) 대비 0.1%감소하였으나 스마트폰 중독률은 14.2%로 전년(11.8%) 대비 2.4% 증가하였다.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모두에서 가장 높은 위험군으로는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12.5%로 전년(11.7%) 대비 0.8%증가하였으나 스마트폰 중독은 29.2%로 전년(25.5%) 대비 3.7%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이 인터넷 중독 보다 일 년 사이 약 4.6배 더 높게 증가함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3].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심리, 정서적 발달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부모, 학교로부터 새로운 역할과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적응의 어려움은 갈등, 긴장,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적 불안정으로 나타나게 되며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는 무언가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4].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다수의 연구들은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성향[5], 새롭고 다양한 그리고 강력한 자극이나 경험을 선호하는 청소년의 감각추구적 성향[6] 그리고 스마트폰이 단순히 통신수단을 넘어 오감과 내부의 감각 반응을 현실화시켜준다고 하는 도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위험성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우울, 불안, 충동성, 공격성, 분노폭발적 성향, ADHD 등과 같은 정신건강문제[4], 시력감퇴, 수면부족, 식욕부진, 체력부진 등과 같은 신체적 건강문제[8] 그리고 사회성 발달과 학교 부적응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를 통해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그 어느 다른 연령층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부모양육태도는 양육과정에서 자녀에 의해 직접 관찰되고 경험되어짐으로써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 보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게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스마트폰 중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변수들 사이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등의 매개효과를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 청소년들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지고, 거부적, 제재적 및 방임적으로 지각할 때 스마트폰 중독에 심하게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실제 부모의 부모양육태도 보다는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스마트폰 중독에 더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각하도록 이끌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적응유연성(resilience)은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으로[12],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유능감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13].

적응유연성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적응유연성이 학교생활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삶의 질,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진로계획, 대인관계 및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가 소수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결과, 동일한 역경에 처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적응유연성에 따라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적응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며 [14], 적응유연성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문제행동과 비행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5,16].

이러한 연구결과로 비추어볼 때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따라 부모양육태도가 달리 지각될 수 있고 스마트폰 중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적응유연성 및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삼고자 시행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 소재 2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 2, 3학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경우에만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Female	145(65.9%)
	Male	75(34.1%)
Grade	1yr	48(21.8%)
	2yrs	144(65.5%)
	3yrs	28(12.7%)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ied	146(66.4%)
	Unsatisfied	28(12.7%)
School grades	High	65(29.5%)
	Middle	110(50.0%)
	Lower	45(20.5%)
Parents' work	Only father	66(30.0%)
	Only mother	6(2.7%)
	Both	143(65.0%)
	Not both	3(1.4%)
Economic state	Others	2(0.9%)
	High	70(31.8%)
	Middle	139(63.2%)
	Lower	11(5.0%)
Time of smartphone usage (hour/a day)	1-2 hours	83(37.7%)
	3-4 hours	66(30.0%)
	Over 5 hours	71(32.3%)
Period of smartphone usage	Under 3 years	158(71.8%)
	Over 3 years	62(28.2%)
The most used functions	Ttelephone conversation	17(7.7%)
	SNS	134(60.0%)
	Mail check & information search	8(3.6%)
Parents' attitude for smartphones	Game	27(12.3%)
	Music	23(10.5%)
	Others(Vidio)	11(5.0%)
	Disabled	3(1.4%)
	Scolded	16(7.3%)
	Nagging	133(60.5%)
Smartphone usage rules	Connivance	18(8.2%)
	Do not care	48(21.8%)
	Encouragement, support	2(9.0%)
Consultation and guidance for smartphone usage (parent)	Yes(presence)	63(28.6%)
	No(absence)	157(71.4%)
Consultation and guidance for smartphone usage (parent)	Yes	91(4.4%)
	No	129(58.6%)

2.2 연구도구

2.2.1 스마트폰 중독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 정보화진흥원(2011)[3]에서 개발한 청소년 자가 진단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총 15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2.2 부모양육태도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정(1985)[17]이 개발한 부모양육태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수용-거부', '자율-통제', '과잉-비과잉 성취압력'의 3개 하위영역에 걸쳐 총 33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 수용적, 성취압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김기정(198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91이었다.

2.2.3 적응유연성

대상자의 적응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임순선(2013)[18]이 개발한 적응유연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의 긍정적 평가', '삶에 대한 태도', '낙관성'으로 구성된 총 18문항의 5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2개 중학교의 220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설문조사에 앞서 본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학생들의 가정에서 연구 취지, 목적, 참여 과정 및 참여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 수집은 수업 시간 또는 학급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나 보건교사의 지도하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총 225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나 부정확한 답변이 있는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총 220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

분석 그리고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34.1%, 여학생이 65.9%로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이 65.5%로 가장 많았다. 성적은 중위권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66.4%가 학교생활에 만족하였다. 부모가 맞벌이 하는 학생이 65%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수준은 63.2%가 중간정도라고 하였다. 부모의 연령은 41-50세가 77.3%, 76.8%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60.6%, 54.5%로 많았다. 또한 90.9%가 형제, 자매가 있었다. 스마트폰 이용기간은 3년 미만이 71.8%로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1-2시간이 37.7%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SNS가 60.0%로 많았으며, 71.4%가 학교나 가정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이나 규제가 없다고 답하였다<Table 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의 차이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을 측정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최소 1.00점에서 최고 3.20점으로 평균 2.09점이었으며, 부모양육태도는 최소 1.94점에서 최고 3.79점으로 평균 2.93점이었고, 적응유연성은 최소 2.00점에서 최고 5.00점으로 평균 3.65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성별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F=3.73, p<.001$), 학년이 높을수록 ($F=8.39, p<.001$), 성적이($F=6.91, p<.001$)이 상위권에 비해 하위권인 경우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유의하게 높

Table 2. Differences of outcome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Parenting attitudes		Resilience		Smartphone addiction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Female	2.93±0.38	-0.14	3.60±0.56	1.27	2.17±0.40	-3.73 *
	Male	2.92±0.40	(.889)	3.73±0.71	(.207)	1.93±0.50	(<.001) a>b
Grade	1yr	2.90±0.36	0.28	3.75±0.61	0.89	1.97±0.42	8.39 *
	2yrs	2.93±0.38	(.759)	3.61±0.56	(.412)	2.17±0.40	(<.001)
	3yrs	2.96±0.47		3.66±0.87		1.86±0.60	a>b,c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2.94±0.41	0.75	3.72±0.64	2.54 *	2.07±0.47	-0.87
	Not satisfaction	2.90±0.33	(.452)	3.50±0.55	(.012) a>b	2.12±0.39	(.387)
School grades	High	2.92±0.47		3.89±0.64	9.39 *	1.92±0.45	6.91 *
	Middle	2.96±0.34	1.005	3.61±0.58	(<.001)	2.14±0.42	(<.001)
	Lower	2.87±0.35	(.368)	3.40±0.56	a>b>c	2.20±0.44	a<b<c
Parents' work	Only father	2.93±0.41		3.73±0.58		2.07±0.50	
	Only mother	2.61±0.31		3.41±0.45	3.21 *	2.10±0.51	0.26
	Both	2.95±0.37	1.42	3.65±0.62	(.014)	2.09±0.41	(.901)
	Not both	2.76±0.51	(.229)	2.69±0.31	a>c>b>e>d	2.29±0.28	
Economic state	Others	2.73±0.64		2.89±1.19		2.27±0.19	
	High	2.96±0.45	0.48	3.87±0.67	7.27 *	2.03±0.50	1.25
	Middle	2.93±0.34	(.620)	3.59±0.57	(.001)	2.12±0.41	(.288)
Time of smartphone usage (hour/a day)	Lower	2.93±0.38		3.38±0.57	a>b>c	1.99±0.53	
	1-2 hours	2.93±0.39		3.74±0.69		1.92±0.48	11.78 *
	3-4 hours	2.99±0.37	1.57	3.64±0.58	1.96	2.14±0.39	(<.001)
Period of smartphone usage	Over 5 hours	2.87±0.38	(.211)	3.55±0.55	(.143)	2.24±0.45	a<b<c
	Under 3 years	2.94±0.38	0.51	3.68±0.62	1.25	2.05±0.45	4.61 *
	Over 3 years	2.90±0.40	(.475)	3.57±0.61	(.265)	2.19±0.43	(.033) a<b
The most used functions	telephone conversation	2.89±0.41		3.80±0.81		2.04±0.55	
	SNS	2.90±0.40		3.62±0.60		2.15±0.43	
	Mail check & information search	3.12±0.43	1.28	3.95±0.68	0.79	1.93±0.63	1.37
	Game	2.90±0.39	(.274)	3.59±0.60	(.555)	2.03±0.42	(.238)
	Music	3.05±0.29		3.71±0.58		1.94±0.42	
	Others(Vidio)	3.05±0.33		3.54±0.63		2.01±0.45	
	Disabled	2.43±0.15		3.39±0.36		1.97±0.91	
	Scolded	2.70±0.38		3.53±0.53		2.10±0.46	
Parents' attitude for smartphones	Nagging	2.94±0.39		3.65±0.62		2.17±0.41	
	Connivance	2.94±0.32	2.38	3.47±0.50	2.93	2.20±0.30	5.22 *
	Do not care	3.01±0.34	(.040)	3.71±0.65	(.014)	1.87±0.45	(<.001)
	Encouragement, support	3.23±0.79		4.92±0.12		1.27±0.38	
Smartphone usage rules	Yes	2.97±0.37	0.82	3.76±0.65	1.75	1.96±0.49	-2.70 *
	No	2.91±0.39	(.380)	3.60±0.60	(.082)	2.14±0.42	(.013) a<b
Consultation and guidance for smartphone usage(parent)	Yes	2.87±0.39		3.61±0.63		2.11±0.44	
	No	2.98±0.39	-2.84 *	3.86±0.66	-1.01	2.06±0.52	0.94
			(.005) a<b		(.314)		(.348)

* p<0.05

았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1-2시간 사용자에게 비해 3시간 이상인 경우($F=11.78, p<.001$),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일수록($F=4.61, p=.033$), 가정이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이 없을수록

($F=-2.70, p=.013$)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양육태도는 부모로부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도나 상담을 받은 대상자

가 받지 않는 대상자보다 부모양육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2.84, p=.00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응유연성은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적응유연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2.54, p=.012$), 성적이 상위권일수록($F=9.39, p<.001$), 아버지의 직장이 있을수록($F=3.21, p=.014$), 경제상태가 상위일수록($F=7.27, p=.001$) 유의하게 높았다.

3.3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과의 관계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과 부모양육태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0.295, p<.001$), 부모양육태도가 자율적, 수용적, 비성취 압력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과 적응유연성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0.270, p<.001$),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와 적응유연성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0.282, p<.001$), 부모양육태도가 자율적, 수용적, 비과잉 성취압력적 일수록 적응유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parenting attitudes (N=220)

Variables	Smartphone addiction	Resilience
Smartphone addiction	1	-0.270 * (<.001)
Parenting attitudes	-0.295 * (<.001)	0.282 * (<.001)

* p<0.05

Table 4. Factors to influence on smartphone addiction (N=22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721	.284		9.594	<.001
Gender	.182	.062	.193	2.957	.003 *
Grades	-.062	.049	-.081	-1.264	.208
School grades	.073	.042	.115	1.757	.080
Time of smartphone usage(hour/a day)	.102	.036	.191	2.868	.005 *
Period of smartphone usage	.006	.027	.015	.224	.823
Parenting attitudes	-.281	.073	-.241	-3.855	<.001 *
Resilience	-.095	.048	-.131	-1.995	.047 *

* p<0.0

3.4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요인인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과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년, 성적,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이용 기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9.775, p<.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²)는 .219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21.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 스마트폰 사용시간, 부모양육태도, 적응유연성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부모양육태도($\beta=-.241, p<.001$)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및 결론

스마트폰 보급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이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모든 연령대 중에서 청소년이 중독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감소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관련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해 봄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삼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은 성별, 학년, 성적, 스마트폰 사용시간 및 스마트폰 이용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학생이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다는 연구[19,20,21]와 일치하였다. 학년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학년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다는 연구[19,20]와 일치하였으나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 연구[21]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학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는 지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적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다는 연구[19,21]와 일치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이용기간에서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와 이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이용기간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다는 연구[4,19,22]와 일치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적응유연성 모두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스마트폰 중독과 부모양육태도간의 부적 상관관계는 여러 선행연구[11,23]와 결과가 일치함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부적 상관이 있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중독과 적응유연성간의 부적 상관관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적응유연성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적응유연성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14,24]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양육태도와 적응유연성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청소년[25]과 초등학생[16]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성별, 학년, 성적,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이용기간), 부모양육태도 및 적응유연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21.9%였고, 부모양육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별, 스마트폰 사용시간, 적응유연성 순으로 나타났고 학년과 스마트폰 이용기간은 유의하지 않았다. 주석진과 조성심(2015)[26]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부적응, 교우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연구들마다 사용된 독립변인들이 달라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변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다 라는 보편적 결론을 얻기에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변인으로 밝혀진 변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에 대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양육태도로 나타났고 부모양육태도는 적응유연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고려할 요소들은 성별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음으로 성별을 고려한 접근 필요하고, 부모양육태도에서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상담이나 지도 유무에서 부모로부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도나 상담을 받은 경우 부모양육태도를 수용적, 자율적, 비성취압력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있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불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변인이 스마트폰 사용시간으로 나타난 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가정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과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시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사회에서는 통신사별 청소년 전용 요금제, 스마트폰 사용시간 알림 서비스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광주지역 중학생으로 제한됨으로써 연구결과를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표집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규명과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www.msip.go.kr, 2015.
- [2]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Development of 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Youth and Adults, 2011.
- [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Internet addiction research studies, 2015.
- [4] Y. S. Yu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ing Smart Phone and Mental Health State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ed on Schools in East Incheo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Korea, 2013.
- [5] D. G. Kim, Y. H. Lee, J. Y. Lee, M. C. Kim, C. M. Keum, J. E. Nam, E. B. Kang, Y. J. Chung, New Patterns in Media Addiction: Is Smartphone a Substitute or a Complement to the Internet.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 pp.71-88, 2012.
- [6] J. R. Eum, E. H. Ha, Effects of Adolescent's Sensation Seeking and Differences between Internet Self-efficacy and Real Self-efficacy on the Smart Phone Addiction.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2(1), pp.357-374, 2014.
- [7] Y. O. Jang, N. O. Jo,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Focusing on the adolescents in Gyeonggi-do.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1(2), pp.137-156, 2014.
- [8] L. Zhang, How game addiction and smart phone addiction affects teens physic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2013.
- [9] B. N. Kim,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Youth's Sociality Development.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4), pp.208-217, 2013.
- [10] I. S. Kong.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warmth and control and their self-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9.
- [11] S. J. Lee, H. J. Moon, Effects of self-control,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n smart-phone addic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2(6), 587-598, 2013. DOI: <http://dx.doi.org/10.5934/kjhe.2013.22.6.587>.
- [12] S. S. Luthar, D. Cicchetti, B. Becker,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pp.543-562, 2000. DOI: <http://dx.doi.org/10.1111/1467-8624.00164>.
- [13] S. S. Luthar,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3), 600-61, 1991. DOI: <http://dx.doi.org/10.2307/1131134>.
- [14] S. C. Sin, Regulating Effects of Resilience toward the Influence of Smart Phone Toxication of Elementary Schoolchildren on Adaptability to School Life and Aggressio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3(1), pp.199-214. 2014.
- [15] J. W. Jung, D. H. Ann, Youth Runaway Behavior: Revealing Links betwee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Resilience, and Runaway Impul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7(3). pp.647-671.23, 2013.
- [16] H. j. Yun, I. Y. Yoo, E. G. Oh,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 of Parenting Attitude, Behavior Problems and Resilience of School Age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7(3). pp.174-180, 2011.
- [17] K. G. Kim,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perceive parental attitudes on self-concep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3(2), pp.35-52, 1985.
- [18] S. S. Lim, Development of Integrated Model of Resilience and Pos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Korea, 2013.
- [19] H. Y. Lee, Y. C. Cho,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Factors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pp.4711-4722,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711>.
- [20] Y. S. Kim, The Effects of Self Esteem and Optimism on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5(1), pp.61-75, 2014.
- [21] M. A. Yoon, Middle School Students' Proneness to Smartphone Addiction and Its Impact on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Korea, 2013.
- [22] H. S. Kim, M. Seo, Influence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Perception and Attitude about Family Mealtime on Smart Phone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27(3), pp.101-111, 2014.
- [23] E. M. Park, K. H. Park,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and Impul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ther and Mother Rearing Attitude and Smartphone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9(3), pp.529-547, 2014.
DOI: <http://dx.doi.org/10.13049/kfwa.2014.19.3.529>.

- [24] J. S. Ko, Mediating Effect of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6), pp.140-151,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6.140>.
- [25] H. S. Kim,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and Ego-Resilience on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at General High Schools and Specialized High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Korea, 2013.
- [26] S. J. Ju, S. S. Cho, In a situation that the smartphone penetration rate and addiction rate are steadily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whether an average smartphone usage time, impulsivity, peer relationships, mother's authoritarianism-rearing attitudes and school maladjustment of youth discriminant. Journal of Youth Welfare, 17(1), pp.91-118, 2015.

김 경 하(Kyung-Ha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09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성인간호, 중환자간호

노 소 영(So-Young Roh)

[정회원]



- 1996년 8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응급간호